

# 이통3사, 2분기 합산 영업익 1조 넘는다 “5G 가입자 덕분”

지난 5월 5G 가입 2400만명 돌파  
신사업 호조, 역대급 실적 견인  
하반기 ‘5G 중간요금제’ 도입



이동통신3사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합산 영업이익이 1조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실적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2분기 실적 호조는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확대되면서 5G 고가요금제로 이동통신 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상승했다. 신사업 호조도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및 증권사 컨센서스(전망치)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231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T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조3068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7% 늘어난 458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난 6조3490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507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늘어난 3조4929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2656억원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3사는 2분기에 임금 단체협약(임단협) 등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집행되는 상황이다. SKT

는 임단협으로 200억원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KT는 최근 우리 사주 청약으로 4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희망퇴직과 관련된 일회성 인건비가 약 450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가 240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마케팅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었고, 신사업 매출은 늘었다.

신사업 분야에서 SKT는 구독 서비스인 ‘T우주’와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디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탈통신이라는 기조 아래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I, 로봇 등 금융 및 제조 등 각 산업군의 디지털전환(DX)에 앞장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유독’을 출시해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팩토리 등 B2B 사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통신사들의 호실적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8월부터 출시하는 5G 중간요금제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떨어뜨리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 CEO들도 5G 중간요금제가 줄 타격을 우려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5G 중간요금제로 인해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밝혔으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통신사들은 재무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라고 언급했다. 증권사도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SKT가 제출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며 “통신3사 모두 마케팅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인건비가 발생했고, 정부의 물가 관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통신3사의 실적에 대한 부담이 노출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5G 중간요금제 초기에는 ARPU가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 ARPU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ARPU가 소폭 하락할 수 있으나, 데이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가 요금제의 업셀링과 LTE에서의 5G로의 신규 유입 효과가 나타나면서 ARPU는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운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SKT, 업계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 통과

SBTi, 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 사업운영 전과정 발생 온실가스 포함

SK텔레콤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검증을 국내 통신사 최초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SBTi는 201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연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 기구로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검증하고 있다.

전 세계의 3500여개의 기업이 SBTi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가 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증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SBTi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을 통과한 것은 SKT가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탄소중립(Net Zero) 목표가 신뢰성이 있음을 대외



SKT의 직원들이 싱글랜 기술을 테스트 하는 모습. /SKT

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SKT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출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의 생산, 유통망 운영, 임직원 출퇴근 및 출장, 폐기물 처리까지의 사업 운영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까지 포함한다.

SKT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 총량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47.7% 가량 줄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3)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22.3% 감축할 계획이다.

SKT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안을 SBTi에 제출해 검증을 받았다. 향후 재생 에너지 사용, 고효율 통신장비 개발 및 도입, 사옥 냉난방 효율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채운정 기자

## 한국타이어, 외부악재에도 매출 2조 기록

전년동기 대비 12.9% 상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물류 대란 등 외부 악재에도 2조원 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399억원과 1752억원이라고 2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9%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6.3% 감소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물류대란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및 효과적인 판매 가격 운용을 통해 매출액 증가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약 3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P 상승해 질적 성장을 이어갔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외관.

중국 시장의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51.8%로 전년동기 대비 11.5%P 올랐다. 한국 시장은 50.5%로 전년동기 대비 3.4%P, 유럽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0.5%P 증가하였다. 또한 북미 시장의 경우 신차용 타이어와 교체용 타이어 모두 안정적인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지역 봉쇄 및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 물량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카카오톡 채널 ‘챗봇’ 이용요금 무료 전환

카카오, 비즈니스 파트너 활용 지원

카카오가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챗봇’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무료로 전환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챗봇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손쉽게 챗봇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다.

카카오는 오는 9월 1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의 AI(인공지능)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챗봇(Chatbot)’ 서비스의 일반 상품을 과금 없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챗봇은 채팅창 안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와 대화 형태로 소통하며 사용자 의도에 가장 정확도 높은 답변을 알아서 찾아주는 서비스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4시간 응대 가능한 챗봇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예약 또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챗봇을 통해 전화 연결 지연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채운정 기자

## LG유플러스

지포스나우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자사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지포스나우’를 월 9900원(VAT 포함)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멤버십 ‘울트라12’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지포스나우는 LG유플러스와 엔비디아(NVIDIA)가 제휴를 통해 2019년 9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다. 현실과 같은 그래픽을 제공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기술을 적용해 ▲로스트아크 ▲원신 ▲검은사막 ▲아키에이지 등 인기 온라인 및 고사양 게임 400여종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채운정 기자

## 위메이드, ESG경영 시동… 위원회 구축

장현국 대표, 위원장 맡아

위메이드가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위메이드는 체계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장현국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ESG 위원회는 전사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 주요 의사결정, 실행 과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관련 내용은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한다.

올 1월에는 전담부서 ESG 팀을 신설해, ESG 경영 실천과 내재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팀, 내부회계관리제도 추가로 만들어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공고히 했다.

ESG 위원회 산하에는 환경경영, 인권/컴플라이언스, 사회공헌, 지배구조, 정보보호 등 다섯 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워킹그룹은 각 영역별 관련 부서 협의체다. ESG팀과 협력해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책임 있는 환경경영 실천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성장 ▲투명한 거버넌스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